

KMI 극동러시아 동향 리포트

Contents

- 통계로 본 이슈
 - 북극항로(NSR) 물동량, 2030년 1억 톤 예상
- 전문가 칼럼
 - 남-북-러 전력인프라 협력 전망
- 극동러시아 주요 동향
 - 극동러시아 선도개발구역, 인프라 정비 예산 증액 결정
 - 인도네시아 제품 극동러 지역 진출 시작, 극동러 지역을 통한 양국 간 교역 확대 예상
 - 극동지역 보스토니치항 물동량 증가세 지속
 - 러시아 정부, 극동 항만 인프라 확장 계획 발표
- 주요 통계
 - 2018년 1~9월 연해주 지역 수입품목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통계로 본 이슈

북극항로 물동량, 2030년 1억 톤 예상

- 세계자연기금(WWF)에 따르면 북극항로(Northern Sea Route)의 화물수송량이 2025년 최대 7,500만톤, 2030년 10,440만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WWF는 러시아 ①자원개발프로젝트, ②2030 항만 인프라 개발전략, ③국영기업 '아톰플로트(Atomflot)'자료 등을 바탕으로 2030년 NSR 화물수송량을 예측
 - 이 중, 현재 계획되어 있는 러시아 Yamal-LNG, Arctic LNG 2 등 자원개발 프로젝트를 고려한 추정치가 2025년 7,500만톤, 2030년 10,440만톤으로 가장 높음
 - 이는 2018년 3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25년까지 NSR 화물 수송량을 현재 10배 수준인 8,000만톤까지 증가시키겠다는 계획과도 유사한 수준임
- 장기적으로 북극항로는 아시아-유럽 구간에 있어 기존 항로(수에즈 운하 경유) 대비 경쟁력을 가지며, 이에 따라 물동량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 부산항-로테르담항의 경우 북극항로 7,667 nautical miles, 수에즈 운하 경유 10,744 nautical miles로 거리 단축 효과가 있음
 - 다만 북극항로는 이용의 계절성이 발생하므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
- 대러제재로 인한 루블 약세에도 시장 규모가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인 이유는 2018년부터 러 정부가 온라인을 통해 해외에서 구매한 천 유로 및 31kg 미만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른 결과로 보여짐



2030년 북극항로 화물수송량 추정치(단위 : 백만 톤)

Cargo traffic estimate	Estimate Year	Estimates based on the projects scheduled				Estimate of Gekon Ltd.	The strategy of port infrastructure development		FSUE "Atomflot"		
		2016	2020	2025	2030	2025	2020	2030	2020	2025	2030
Total		12.4	47.7	75.0	104.4	54.97	38.7	67.5	36	64.5	65.3
Petroleum Products		9.6	36.2	50.8	69.4	40	33.9	57.6	33.5	50	50
Oil and Condensate		9.6	19.7	31.7	36.7		5.9	6.2	17	17	17
Prirazlomnaya		1.0	4.8	4.8	3.0						
Varandey		6.6	8.0	12.0	12.0						
Novoport		2.0	5.5	8.5	8.5				8.5	8.5	8.5
Payyach				5.0	5.0				7.3	7.3	7.3
Yamal-LNG			1.2	1.0	0.8				1.2	1.2	1.2
Dolginskoye				0.0	7.0						
Others		0.1	0.2	0.4	0.4						
LNG		0.0	16.5	19.1	32.7		28	51.4	16.5	33	33
Yamal-LNG		0.0	16.5	16.5	16.5				16.5	16.5	16.5
Arctic LNG 2		0.0	0.0	0.0	11.0					16.5	16.5
Pechora LNG		0.0	0.0	2.6	5.2						
Concentrates and Ores		0.7	1.0	1.0	1.0	0.97	0.5	0.5	0	1.3	1.3
Norilsk Nickel		0.7	0.7	0.7	0.7	0.6				1.3	1.3
Pavlovsk Deposit		0.0	0.3	0.3	0.3	0.27					
Mayskoye Mine		0.0	0.1	0.1	0.1	0.1					
Coal		1.0	8.0	20.0	30.0	10	1.8	5.4	0	10	10
Talbass		1.0	8.0	20.0	30.0	10				10	10
Severnny Zavoz		1.0	1.5	2.0	2.0	2	1.5	2	1.5	2	2
Transit		0.0	1.0	1.2	2.0	2	1	2	1	1.2	2

참고자료 : WWF, Prospects and opportunities for using LNG for bunkering in the arctic regions of russia (검색일: 2018년 12월 7일)

조지성 전문연구원

051-797-4916, jisungjo@kmi.re.kr



전문가칼럼

남-북-러 전력인프라 협력전망



윤재영

한국전기연구원 전력망연구본부장

2018년은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적 지형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한해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1945년 해방이후 남북한 관계는 긴장과 협력의 고비가 4~5차례 반복적으로 순환하는 모습을 보았다면 올 한해는 이를 근간에서 뒤 흔들고 새로운 모습으로 뿌리 채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 3차례의 남북한 정상회담 과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통하여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 셈이다. 물론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이 향후의 한반도 정세를 완전히 담보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관계 당사국들은 북한의 핵 폐기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하여 계속적인 전진을 이행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당사국 중에서 러시아는 자국의 정치경제적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쏟고 있다. 북한문제에 있어서는 4대 열강 중에서 상대적으로 한반도 문제에서 소외된 느낌을 탈피하려고 하고 한국과는 에너지와 물류를 비롯한 많은 분야에서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고 한다. 러시아는 동방정책의 일환으로 경제적으로 낙후된 극동지역을 개발하고자 하며 그 일환으로 한국과의 가스망과 전력망연계 등의 에너지협력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 러시아의 극동지역 개발정책은 해외자본을 끌어들이고 이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역내국가간의 평화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동북아지역은 전력소비 부문에서 전 세계의 중심지역이다. 중국, 일본, 러시아 및 한국이 전력산업 부문에서 글로벌 Top 10에 속하며 향후에도 괄목할 경제성장이 예견되어 지속적인 전력 수요 성장지역으로 예상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에너지산업분야는 유럽과 북남미 등의 지역에서 에너지수급의 편이성과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기 위하여 역내 국가 간에 에너지인프라 네트워크를 상호 연계하고 있다. 하지만, 동북아지역은 과거의 역사적 잔재와 정치경제적 체제 차이로 인하여 현재까지도 공동의 에너지연계망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전력수급은 가스나 석유 등 여타 1차 에너지보다 더욱 확실히 수급의 안정성이 확실히 담보되어야 하며, 에너지안보로 인한 파급영향이 통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으로 동북아지역에서 역내 공동체간의 인프라 연계망이 형성되지 않았었다. 하지만, 2018년 한반도의 평화무드 조성은 단순히 남북관계 뿐만 아니라 동북아지역 전체의 협력 분위기 조성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역내 국가 간의 평화무드 조성과 더불어 상호 경제적 이익과 정치적 협력을 공유하기 위한 방편으로 역내 국가 간에 다양한 인프라 연계망이 논의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동북아슈퍼그리드는 “친환경전원을 공동개발하고 이를 동북아 6개국(한국/북한/몽골/러시아/중국/일본) 전력망에 연계하여 상호 기술·경제적 이익을 향유하고 역내 평화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에너지안보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전기라는 상품을 자유롭게 거래하는 것으로서 역내 국가 간 경제협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1991년 (구)소련 붕괴로 인하여 러시아는 고도의 경제위기를 겪었다. 특히 변방에 해당하는 극동과 시베리아지역은 심각한 인구유출과 경제난 및 그 결과로서 전력수요가 1990년 내내 급감하였고 과도한 잉여전력이 발생하게 되었다. 러시아는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잉여전력의 대외수출을 기획하였다. 처음에는 일본으로 전력수출을 위한 협상을 하였으나 북방 4개 도서 반환문제 등 정치적 사안으로 결렬되었다. 그 이후 2000년대부터 러시아는 새로운 전력수출 대상국가로서 북한을 경유한 한국으로의 전력연계망을 제안하고 현재까지 상호간 협의 중이다.

이러한 제안은 당초 큰 호응을 받았으며 한국전기연구원과 러시아의 ESI(Energy System Institute)가 공동연구를 통하여 한국-북한-러시아 전력연계망 시나리오 설계 및 기본타당성연구를 수행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이와 같이 한-러 전력망연계가 활발히 논의되었지만 다양한 장애요인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구체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결정적으로 북한이라는 변수요인이 자리 잡고 있으며 더불어 실질적인 경제력과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 중국과 일본과의 전력연계망이 최근에 들어서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가오는 2019년도에는 북한의 핵 폐기와 한반도 평화무드 정착과 더불어 한국과 러시아간의 협력에도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그 동안 정체되었던 한-러 에너지 협력관계가 실질적인 궤도에 돌입하며, 한-중 및 한-일 전력 인프라망 추진과 병행하여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이를 위해서는 주변정세 및 관련 사안을 종합할 때 몇 가지 정비되어야 할 점이 있다고 본다.

첫 번째는 남북한 정치적 협상이 완료되고 대북 경제제제가 풀려야 원활한 한-러 에너지협력이 가능할 것이다. 현재와 같은 조건에서 북한을 경유한 전력연계망 구축은 불가능하며, 실질적인 논의에 돌입할 수가 없다. 짐작하건데 남북 및 북미협상이 완료되면 북한은 반대급부로서 에너지협력, 그 중에서도 특히 경제난의 핵심원인인 전력협력을 요구할 것이다. 이는 남북한전력협력과 동북아전력협력, 특히 한-러 전력 협력의 동반 추진가능성을 의미한다. 한-러 전력연계망에서 동해안을 경유하는 연계선로를 상정할 수도 있지만 이는 경제성과 수도권으로의 전력수송 측면에서 비합리적이다.

두 번째는 러시아 내부에서의 전력망연계와 관련된 리더십과 비즈니스 마인드가 명확해야 할 것이다. 국내의 관련기관들은 러시아내의 다양한 기관들이 접촉하는 것과 명확한 계약관계 등의 자본주의체제의 비즈니스 마인드와 상이한 점으로 인해 약간은 당혹한 점을 느끼고 있다. 러시아의 전력수출을 담당하는 인터라오(INTER-RAO), 수력회사인 하이드로에네르고(HYDRO-ENERGO), 국내의 한전에 해당하는 로세티(ROSSETI) 등이 각각 나서는 것 보다는 책임 있는 당국이 직접 한국의 관계기관과 협상하고 여타기관은 실무지원을 하는 형식이 바람직할 것이다.

세 번째는 러시아의 극동지역 역시 과거와 달리 잉여전력이 풍부한 편은 아니며 향후 국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전원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점에서 러시아는 전원입지와 개발계획 및 북한경유에 따른 에너지안보 측면 고려 등 정확한 비즈니스 플랜을 제시하고, 한국은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하여 협상하여야 할 것이다.

네 번째는 동북아 전력연계망의 다양한 시나리오와 조화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한-중과 한-일 전력망연계가 실질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한국입장에서는 이러한 주변국가와의 에너지 인프라망에 대한 종합적 조망이 필요하다. 특히 동북아지역의 친환경 전원개발 측면에서 고비사막에서의 대규모 신재생전원 개발 가능성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계획을 고려하고 이와 조화시켜야 할 것이다. 더불어 국가 간 연계망을 구축하기 위한 법제도 차이를 정비하고 각 국가별 전력시장의 수용성을 고려해야 한다.



동북아 전력망 시나리오 개념도



남북러 협력분야는 철도, 해양물류 및 가스, 전력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가 있다. 2019년도에는 북미회담과 남북협상의 순조로운 진행과 이에 따른 남북 전력협력의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다. 남북한 모두 전력협력은 최후의 보루이자 협상의 대가로서 1순위로 보고 있다. 주변상황이 순조롭다면 2019년도에는 남북전력협력과 병행하여 한-러 전력망연계 역시 실질적인 추진단계로 돌입할 것이다. 한국과 러시아간의 가스망 연계는 전력망연계보다 10년 앞서 추진되었지만 3차례의 타당성조사와 수많은 협의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더뎠고 있다. 현재 중국의 배전선로가 북한의 나선특구에 소규모이지만 전기 공급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은 러시아를 조급하게 만드는 사안이 될 것이다. 2000년대 이후 북한과 러시아간에 논의되고 있지만 정체상태인 블라디보스톡-청진 AC 계통연계 등과 더불어 조금은 차분하게 논의할 필요도 있다. 이 점은 에너지안보 문제가 더욱 큰 이슈가 되는 전력분야는 더욱 그러할 것이며, 조금은 냉철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된다.

한-러 전력망연계는 전력산업계의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입장에서는 북한과 더불어 지정학적 견지에서 동북아 중심국가, 특히 에너지 연계망의 경유국가로서



동북아에너지 허브국가를 지향해야 한다. 국가현안인 신재생 3020 목표달성과 연계하여 장기적인 계획 하에 단계별로 한-러 전력연계망을 포함한 동북아슈퍼그리드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동북아슈퍼그리를 통하여 전력공급의 친환경성과 더불어 규모의 경제에 따른 경제성과 전기품질 향상 및 계통 안정성을 담보해야 하며, 한-러 전력망연계도 동일한 개념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다가오는 2019년에는 남북한을 포함한 전체 동북아지역의 역내 평화와 더불어 북한을 경유한 한국-북한-러시아 전력망연계망에 대한 실질적인 추진이 시도되기를 기대한다.

동북아 전력망 분야별 영향

	• 동북아에서 독립 민자발전사업(IPP Project) 개발 • Green Field, Brown Field(M&A, ROMM)
	• 풍력(육상, 해상), 태양광, 지열 등 신성장 동력 확보 • 신재생에너지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사업
	• 송전선로 및 변전소건설 EPC 사업 • HVDC, 광역 전력망 구축 및 운영, 전력거래 사업
	• 유연탄 및 가스 확보, 연료비 변동성 완충 • 탐사, 개발 및 지분인수 사업



극동러시아 주요 동향

극동러시아 선도개발구역, 인프라 정비 예산 증액 결정

- 지난 11월 20일 러시아 정부는 극동러시아의 선도개발구역(TOC) 중 6개 구역에 대한 인프라 정비 예산 증액을 결정함
 - 이번 예산 증액은 필수 인프라 정비 및 새로운 투자자 유치를 위한 환경을 제공하고, 건설, 농업, 공업, 관광, 항공수송, 조선, 주택건설, 자원가공, 어업, 물류 등의 투자계획 실현을 목적으로 함
 - 선정된 6개 구역은 예산 증액을 통해 에너지, 엔지니어링(설계), 수송 인프라 등의 정비가 이루어질 예정임

선도개발구역 개요



구 분	선도개발구	이외 지역
법인세	최초 5년간 면제, 이후 5년간 12%	20%
자산세	최초 5년간 면제, 이후 5년간 1.1%	2.2%
토지세	최초 3년간 면제	0.3~1.5%
사회보험료(고용주부담)	최초 10년간 7.6%	30%

자료: 극동개발청 공식사이트 자료



- 선도개발구역은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2013년 12월 푸틴 대통령이 극동·동시베리아지역에 대한 사회경제선도개발구역(ASEZ: Advanced Special Economy Zone) 조성을 제안한 이후 2015년부터 선도개발구역이 지정됨
 - 현재 18개 구역이 지정·운영되고 있음(2015년 9개소, 2016년 5개소, 2017년 4개소)
- 러시아 정부의 예산 증액 규모는 138억 7,000만 루블(한화 기준 약 2,358억 원, 1루블 = 17원)임
 - 유즈나야 야쿠티야는 신규로 67억 루블이 배정되었고, 볼쇼이카멘과 나데진스키야는 각각 65.8%, 62.3%의 예산이 증액되었음

선도개발구역 인프라 정비 예산 증액표

단위 : 100만 루블

지 역	변경전	변경후	증감율
코스모스크	902.60	1,374.93	52.3%
나데진스카야	3,739.90	6,068.17	62.3%
하바롭스크	2,329.17	1,029.29	44.2%
캄차트카	5,727.50	1,229.24	21.5%
볼쇼이카멘	3,152.00	2,073.00	65.8%
유즈나야 야쿠티야	-	6,741.11	-
합계	15,851.17	13,873.24	87.5%

자료: 일본무역진흥기구 공식 홈페이지(러시아 정부결정 제1381호)

■ 참고자료 : <https://www.jetro.go.jp/>(검색일: 2018년 12월 11일)

최나영환 전문연구원

051-797-4677, chnayoung@kmi.re.kr



인도네시아 제품 극동러 지역 진출 시작, 극동러 지역을 통한 양국 간 교역 확대 예상

- 최근 맥주, 커피, 가구와 같은 인도네시아 제품들은 프리모르스키(Primorsky), 시베리아 등 극동러시아 지역과 나아가 모스크바 지역까지 진출하기 시작함
 - 대표적으로 인도네시아의 유명 맥주인 "발리 하이(Bali Hai)"는 프리모르스키 지역에 90%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음
 - 2018년 2월 첫 수입을 시작으로 올해 약 30개 컨테이너를 수입했으며, 2019년에는 수입량이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그 외 팜 오일, 인스턴트 커피, 종이 등의 수요도 상당히 높아져 다양한 유통업체들을 통해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인도네시아와 프리모르스키 지역 간 무역은 인도네시아 와히드(Wahid) 대사와 프리모르스키의 올레그 코즈미야코(Oleg Kozhemyako) 총재 간 만남에서 논의됨
 - 지난 12월 7일 인도네시아 대사는 극동러 프리모르스키 지역의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하였으며, 경제상담원, 무역부장관 등도 함께 동행함
 - 두 지역 간 무역액은 2017년 기준 2,100만 달러에 그쳤으나, 이번 양국의 만남을 통한 논의에서 상호 무역을 활성화 하자는데 동의함
 - 또한 인도네시아에서는 가까운 시일 내 러시아 극동 지역과 인도네시아 간 비즈니스 협회 설립을 제안하기도 함
- 지리적으로 인도네시아와 극동러 블라디보스토크 간 거리는 모스크바 보다 가까우며, 양국 간 해상운송 비용 및 거리에 있어서도 모스크바 지역보다 극동러 지역이 경쟁력이 있음
 - 인도네시아에서 러시아 서부지역의 상트페테르부르크(St. Petersburg)까지 해상운송에는 40일이 소요되는 반면, 블라디보스토크까지 16일이 소요됨
 -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모스크바까지는 철송을 통해 운송이 가능함(약 1주일 소요)
 - 따라서 극동러 지역은 인도네시아와 무역에 있어 러시아 동부 및 서부 전역을 아우를 수 있는 관문으로 역할이 충분히 기대되는 지역임



- 이처럼 양국은 인도네시아와 러시아간 무역 확대에 대한 충분한 잠재력을 기대하고 있으며, 극동러 지역을 통한 무역확대는 러시아 정부의 극동러 개발 정책과 부합한다고 할 수 있음
 - 프리모르스키는 러시아 연방(Russian Federation) 중 하나로 2012년 프리모르스키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이후 급속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음
 - 러시아 정부는 블라디보스토크 지역에 인프라 개발과 함께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관문으로 육성하고자 하며, 매년 동방경제포럼(EEC) 및 태평양국제관광박람회(PITE)가 개최되고 있음

인도네시아 대사와 프리모르스키 연방 총재 회담



자료: <http://en.tempo.co>

■ 참고자료: <http://en.tempo.co/read/news/2018/12/10/056924126/Indonesian-Products-Begin-to-Enter-Far-East-Russia>(검색일: 2018년 12월 11일)

김보경 연구원

051-797-4674, kimb@kmi.re.kr



극동지역 보스토치니항 물동량 증가세 지속

- 극동 보스토치니항 석탄물동량이 작년에 이어 올해 또한 플러스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 보스토치니항은 러시아 전체 석탄수출의 25%를 담당하는 극동러시아 지역의 허브항임
 - 항만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1~11월간 아시아태평양(이하'아태') 지역으로 공급된 석탄 물동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8% 늘어나 총 2230만 톤을 달했음
 - 보스토치니항을 통해 가장 많은 석탄이 수출된 국가는 한국으로, 전체 물량의 33%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밝혀짐
- 올해 보스토치니항 하역된 석탄규모는 석탄 운반화차 29만 8천개의 달하는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짐
 - 이 가운데 화물 적재량이 증가된 혁신형 화차차량의 비율은 77% 비중이었음
 - 벌크선 또한 총 525척의 처리했으며, 그 중 파나맥스 선은 174척, 케이프사이즈 선은 53척이었음
- 러시아는 현재 인도네시아, 호주에 이어 세계 3위 석탄 수출국임
 - 2017년 1억 8600만톤 규모의 석탄을 수출하며, 최근 5년간 석탄수출이 25% 가량성장하는 기염을 토하고 있음
- 석탄사용을 줄이는 유럽과 달리 아시아에선 석탄수요가 꾸준히 늘어날 것이라는 항만 관계자의 전망이다
 -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석탄화력발전소 신설을 계획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음



- 최근 아시아 수요의 급격한 증가와 유럽 수요의 정체로 러시아의 석탄수출 통계에서 아시아와 유럽이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역전되는 알려짐
 - 업계 전문가에 따르면, 전체 러시아 석탄수출 물량에서 40%에 불과했던 아시아 물량이 2017년부터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라고 밝힘
- 최근 러시아는 아시아 물동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흐름에 대응해 보스토치니항 벌크항을 재정비하고 있음.
 - 석탄부두 확장공사가 완료되면 보스토치니항의 석탄처리능력은 700만 톤 늘어난 연간 3,90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일본기업 도세이는 국제협력은행(JBIC)과 협력해 연해주 파르티잔스크에서 2,000만 톤 규모의 석탄 전용 부두를 건설 중임

보스토치니 항



자료: www.yandex.ru(검색일: 2018년 12월 7일)

■ 참고자료 : <http://www.interfax-russia.ru/FarEast/news.asp?id=988539&sec=1679>
(검색일: 2018년 12월 7일)

전명수 현지리포터(국립 블라디보스톡경제서비스대학교)

070-5044-9502, msjeon1976@gmail.com



러시아 정부, 극동 항만 인프라 확장 계획 발표

- 올해 VTB Capital이 개최한 'RUSSIA CALLING' 포럼에서 러시아 연방 블라지미르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연방 항구 인프라 시설 확대 계획을 발표함
 - 본 포럼은 11월 28일부터 30일까지 모스크바에서 진행되었으며 러시아의 자본유치, 투자환경 개선, 대외 경제 및 비즈니스 관계발전 등을 위한 주요 포럼 중 하나임
 - 블라지미르 푸틴은 환적화물 처리량이 2013년 약 3억 톤에서 2017년에 약 10억 톤으로 증가하였으며 러시아 항만 중 특히 극동 및 동시베리아 항만 인프라를 확대·개발할 것을 강조함

‘RUSSIA CALLING’ 포럼에서 연설 중인 블라지미르 푸틴 대통령



자료: <https://minvr.ru/press-center/news/19960/>(검색일: 2018년 12월 1일)

- 또한 블라지미르 푸틴 대통령은 시베리아 횡단 철도와 바이칼-아무르 철도의 현대화 2단계 이행과 연방정부와 지역정부가 함께 극동지역 개발 프로젝트를 보장할 것을 지시함



- 해당 정부 부처는 항구 인프라 시설 개발 도입기간을 보장해야하며 내년 2월 1일 까지 관련 내용을 대통령에서 보고해야함 (이후 보고는 6개월 마다 진행됨)
- 추코트카 자치구 주정부는 러시아 연방 정부와 함께 베린고브스크 항만의 화물기지 및 접안시설 등의 항만시설 개발을 위해 민간투자 실행 계획 제안서를 준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자 함
 - 제안서는 내년 6월 1일까지 작성될 예정임
 - 또한 화물 처리량 증대를 위해서는 베린고브스크 항만까지 약 37km의 연간 운행 가능한 도로가 건설 되어야함
 - 이와 같은 항만 및 도로 인프라가 구축되었을 시 석탄 수출은 최대 4배 이상, 연간 최대 100만 톤이 수출 될 것으로 전망함
- 이외에도 러시아 정부는 페트로파블롭스크-캄차트카 도시와 북쿠릴 도시를 연결하기 위한 화물 및 여객선을 건조해야함
 - 이는 러시아 연방 국가 프로그램 '운송시스템 개발'에 의해 수행되며 건조된 선박은 캄차트카 반도, 사할린항, 마가단주, 연해주, 쿠릴열도간의 네트워크 연결을 위해 정기운항 될 예정임

■ 참고자료 : <https://minvr.ru/press-center/news/19960/>(검색일: 2018년 12월 1일)

김은미 현지 리포터(국립극동교통대학교)

051-797-4776, usea1004@gmail.com



주요 통계

2018년 1~9월 연해주 지역 수입품목

(단위: 천 달러)

상품명	2018.01.01. ~ 2018.9.30		
	합계	해외	CIS
합계	3,040,190.0	3,010,457.3	29,732.6
동물	1,861.6	1,861.6	
육류 및 식용 육류의 부산물	107,060.6	107,009.6	51.0
냉동 고기	40,248.2	40,248.2	
냉동고기: 뼈 없는 고기	40,248.2	40,248.2	
생, 냉장 또는 냉동 돼지고기	42,106.4	42,106.4	
냉동 돼지고기: 내장 완전 제거된 것과 반 제거된 것	6,382.0	6,382.0	
냉동 돼지고기: 기타	33,468.5	33,468.5	
새우, 냉장 또는 냉동 한 양 또는 염소 고기	2,509.9	2,509.9	
소, 돼지, 양 등의 식용 부산물	6,217.8	6,217.8	
날것의 육류, 가금류의 식용 부산물(냉장 또는 냉동)	8,469.8	8,418.8	51.0
닭고기: 닭의 일부와 부산물(냉동)	8,418.8	8,418.8	
어류 및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산 무척추 동물	49,085.1	49,085.1	
날생선	55.8	55.8	
냉동 생선	35,283.9	35,283.9	
생선 가슴살 및 기타 생선살(다진 고기포함), 생, 냉장 또는 냉동	1,602.2	1,602.2	
건조, 소금에 절인, 훈제 생선; 어분	4,795.2	4,795.2	
갑각류	1,960.1	1,960.1	
오징어, 낙지	4,063.8	4,063.8	
유제품; 조류의 알; 자연산 꿀; 동물성 식품 (다른 곳에서 지정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함)	2,110.1	111.3	1,998.8
우유와 크림, 응축된 것 또는 설탕이	737.1	49.9	687.3



첨가된 것			
우유로 만든 버터 및 기타 지방, 오일; 우유로 만든 연고	322.2	61.4	260.7
치즈와 두부	988.7		988.7
새의 알, 껍질	62.1		62.1
동물성제품	121.6	121.6	
살아있는 나무 및 식물; 전구, 뿌리 등; 잘라진 꽃과 관상용 단풍	220.8	220.8	
구근, 괴경, 결절뿌리	7.9	7.9	
야채와 일부 식용 뿌리와 알뿌리식물	106,548.4	105,311.1	1,237.3
신선 또는 냉장감자	11,206.3	11,206.3	
신선 또는 냉장 토마토	29,308.6	29,133.2	175.5
신선하거나 냉장된 양파, 샬롯, 마늘, 부추 및 기타 뿌리 채소	14,571.8	14,530.2	41.6
신선하거나 냉장된 양배추	7,868.1	7,705.5	162.7
당근, 순무, 사탕무, 및 기타 유사한 식용 뿌리채소(신선하거나 냉장한 것)	12,006.3	11,964.9	41.5
신선하거나 냉장된 오이	9,894.5	9,883.0	11.6
신선하거나 냉장된 콩류	58.9	58.9	
신선하거나 냉장된 야채 (가지, 버섯, 후추, 올리브, 호박 등)	14,668.8	14,013.8	655.0
냉동 야채(날 것이거나 물 또는 증기로 조리 된것)	4,220.1	4,220.1	
냉동감자	2.1	2.1	
건조, 얇게썬것, 다진 것 또는 가루로만든 야채, 더 이상 가공하지 않은 것	665.4	665.4	
말린콩과식물	102.4	102.4	0.0
과일 및 견과류; 감귤류, 멜론의 껍질 신선하거나 건조시킨 견과류(코코넛, 브라질 및 캐슈 제외)	102,937.9	100,673.1	2,264.9
바나나(신선 또는 건조된 바나나 포함)	357.1	161.1	196.0
대추 또는 무화과, 파인애플, 아보카도, 구아바, 망고 및 망고 스킨, 신선 또는 건조한 것	24,971.7	24,971.7	
	2,272.8	2,270.4	2.4
감귤류의 신선 또는 건조한 것	17,618.8	17,478.1	140.7



오렌지	3,661.6	3,575.2	86.4
만다린(탄저린과 사츠마 포함)	9,755.9	9,705.0	50.9
자몽	1,645.7	1,645.7	
레몬과 라임	2,546.3	2,543.6	2.7
신선한 포도 또는 건조된 포도	5,966.6	5,965.1	1.5
멜론(수박 포함) 및 파파야(말리거나 냉장되지 않은 신선한)	1,063.6	1,061.4	2.2
사과, 배, 마르멜루(말리거나 냉장되지 않은 신선한)	26,861.8	26,577.9	283.9
사과	19,090.8	19,045.4	45.4
살구, 버찌, 복숭아(벡타린 포함), 자두및가시(말리거나 냉장되지 않은 신선한)	12,429.9	12,333.1	96.8
신선한 기타 과일(열매, 키위, 감 등)	7,623.6	6,425.4	1,198.3
냉동과일 및 견과류	2,611.4	2,611.4	
말린 과일(0801-0806 과일제외); 이 그룹의 견과류 또는 말린 과일의 혼합물	811.5	790.7	20.8
커피, 차, 마테 또는 파라과이 차 및 향료	8,840.5	8,832.4	8.1
커피 또는 볶은 커피 (카페인 포함 또는 불포함)	663.1	663.1	
비카페인커피	3.1	3.1	
카페인이 포함된 볶은 커피	659.4	659.4	
향을 낸, 또는 향을 내지 않은 차	6,728.9	6,726.1	2.8
홍차(1차 포장에서 순함량 3kg 이하)	2,321.9	2,321.9	0.0
기타홍차	4,139.2	4,136.6	2.6
파이버 속의 고추, 짓눌리지 않고 땅에 떨어뜨리지 않은	81.2	81.2	
곡류	5,564.3	5,564.1	0.1
밀과 메스린	3.9	3.9	
옥수수	25.5	25.5	
쌀	5,352.8	5,352.6	0.1
밀가루 및 곡류 제품, 맥아, 전분, 이눌린, 글루텐	494.4	494.3	0.1
밀가루, 밀 또는 호밀	36.5	36.5	
밀 또는 호밀을 제외한 기타 곡류의 곡물	17.5	17.5	



곡물, 통밀가루및시리얼과립	0.0		0.0
맥아	84.0	84.0	
지방종자와 과일; 그 외 종자, 과일 및 곡물; 기술적 목적을 위한 의약식물; 밀짚과 사료	2,006.0	2,005.4	0.6
콩	141.8	141.8	
땅콩	1,217.0	1,216.9	0.1
짚눌린 또는 흠 없는 해바라기 씨앗	59.6	59.6	
천연 셀락, 고무, 수지, 식물 추출물	4,870.7	4,870.7	
즙을 낸 제품을 만들기위한 식물 재료; 식물성 가공생선제품(다른 품목에 명시되거나 포함 되지 아니한 것에 한함)	53.6	53.6	
동식물성 지방 및 오일 및 분해산물, 식용 지방, 동식물성 왁스	1,388.3	1,387.4	0.9
콩기름 및 그 분획물	457.3	457.3	
올리브오일과 그 분획물	91.2	91.2	
올리브에서만얻은오일과분획	5.7	5.7	
팜유및그분획물	42.5	42.5	
유채 기름 또는 겨자 및 그 분획물	5.5	5.5	
마가린 제품	377.4	377.4	
육류, 어류 또는 갑각류, 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 무척추동물로부터 제조된 제품	8,652.1	8,513.0	139.1
소시지 및 이와 유사한 육제품	1.6	1.6	
조제된 혹은 통조림 식육 제품(소시지 제외)	148.1	53.6	94.5
준비되거나 통조림으로 만들어진 물고기; 철갑상어와 그 대체물고기, 달걀로 만든 캐피어	7,243.9	7,199.3	44.6
갑각류, 연체동물및기타수생무척추동물	1,258.5	1,258.5	
설탕, 설탕이 함유된 제과 제품	3,530.4	3,521.2	9.2
사탕수수 또는 사탕무 및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	15.8	15.8	
사탕수수로부터 나온 설탕 원료	0.2	0.2	
기타백설탕	1.1	1.1	
과자류 - 설탕 과자 제품 (화이트 초콜릿	2,595.9	2,588.1	7.8



포함), 코코아가 들어 있지 않은 품목			
껌	487.4	487.4	
코코아와 함유된 제품	838.5	819.5	19.0
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가 첨가되지 않은 코코아 파우더	4.3	4.3	
코코아가 함유 된 초콜릿 및 기타 기성품	834.2	815.2	19.0
곡물, 밀가루, 전분 또는 우유로 만든 기성품; 밀가루 과자	14,668.6	14,656.6	11.9
파스타(조리 되었거나 조리 되지 않은)	3,257.5	3,256.7	0.8
빵 및 기타 밀가루제과	10,508.8	10,499.0	9.8
야채, 과일, 견과류 또는 식물의 다른 부분의 가공 제품	36,018.5	35,951.4	67.1
식초 또는 초산을 첨가하여 조제 또는 보존 한 채소, 과일, 견과류 및 식물의 기타 식용 부분	7,811.9	7,809.6	2.3
식초를 첨가하지 않고 조제하거나 보존한 토마토	573.1	570.8	2.3
식초를 첨가하지 않고 조리하거나 보존한 버섯과 송로버섯	3,417.2	3,417.2	
식초를 첨가하지 않고 조제하거나 보존 한 기타 야채	9,971.4	9,951.5	19.9
야채, 과일, 견과류, 설탕을 넣은 통조림 잼, 젤리, 마멀레이드, 으깬감자, 페이스트요리	43.1	43.1	
식물의 열매, 견과류 및 기타 식용 부분 (다른 곳에서 만들어지거나 보존되지 않은 것)	358.5	329.5	29.0
과일 주스 및 야채 주스, 발효되지 않고 알코올 첨가물이 들어 있지 않음	12,501.3	12,487.8	13.6
기타 식품	396.4	396.4	
커피, 차 및 기반으로 하는 기성품의 추출물, 농축물	31,705.8	31,703.5	2.3
커피의 추출물, 에센스 및 농축물	4,961.7	4,961.7	
커피 추출물 또는 커피 기반의 기성품	3,561.3	3,561.3	
소스 제품, 기성품 소스	1,353.1	1,353.1	
마요네즈	9,855.3	9,853.5	1.8
	2,521.1	2,521.1	



수프와 국 종류의 반가공식품	69.2	68.7	0.5
아이스크림, 식용 얼음	663.3	663.3	
알콜 및 무알콜 음료 및 식초	22,207.6	22,206.2	1.4
감미료 또는 향료 물질의 첨가물을 함유 한 광물질 및 탄산수	13,924.0	13,922.6	1.4
맥주	6,974.8	6,974.8	
포도로 만들어진 와인	77.4	77.4	
식물성 또는 방향성 물질을첨 기한 버몬트 및 포도 와인	5.4	5.4	
알코올팅크, 리큐어 및 기타 주류	836.4	836.4	
보드카	272.3	272.3	
식품 산업의 잔류물 및 폐기물; 기성품 애완동물사료	4,765.1	4,765.1	
동물사료에 사용되는 제품	2,219.4	2,219.4	
담배 및 산업용 담배 대체품	250.9	250.9	
원시담배; 담배폐기물	17.3	17.3	
시가, 자른 시가, 시가 릴로 및 담배	233.6	233.6	
시가, 담배를 함유 한 엽권련과 시가 릴	37.3	37.3	
담배	196.3	196.3	
소금; 황; 돌; 석고 재료, 석회 및 시멘트	698.7	689.5	9.2
식용 소금	15.4	15.4	
천연 모래	9.7	9.2	0.4
자갈, 쇄석	1.0	1.0	
광석, 슬래그 및 회분	367.1	367.1	
미네랄 연료, 오일 및 증류 제품; 역청 질 물질; 광물 왁스	36,883.0	36,816.9	66.1
역청질 암석에서 추출된 석유 제품 (원유 제외)	34,398.4	34,332.3	66.1
기름	34,358.6	34,292.5	66.1
석유 가스 및 기타 탄화 수소	2,464.3	2,464.3	
코크스와 석유의 역청	4.2	4.2	
무기 화학 제품	6,568.7	6,553.1	15.6



인공 강옥, 산화 알루미늄	204.1	204.1	
산화 알루미늄	3.0	3.0	
유기 화학 물질	10,074.9	9,814.3	260.6
의약품	330.6	257.2	73.4
비료	43.8	33.7	10.1
유제 및 염색 추출물, 염료, 안료, 바니시, 잉크	12,269.5	12,155.2	114.3
비수성 페인트 및 염료	4,427.5	4,415.8	11.8
수성 페인트 및 염료	988.9	968.0	20.9
정원과 유리를 메우는 시멘트, 페인트 작업용 퍼티	3,970.8	3,956.7	14.2
인쇄 잉크, 염색 염료	550.6	486.1	64.6
에센셜 오일 및 레지 노이드; 향수, 화장품 또는 화장실 용품	20,269.5	20,007.8	261.8
산업용 원료로 음료수 제조에 사용되는 향수의 혼합물	22.5	18.5	4.0
향수 및 화장실용 물	520.4	487.9	32.5
화장품	9,604.8	9,400.8	204.0
샴푸	3,224.0	3,221.5	2.5
치약	1,716.6	1,716.6	0.0
면도 제품	25.1	25.0	0.1
방취제	20.6	11.4	9.2
목욕 소금, 아로마 및 에어 탈취 제품	40.3	39.9	0.4
비누, 세제, 윤활제 왁스 및 청소용 왁스, 몰딩, 점토, 치약	21,429.8	21,176.5	253.3
화장실 용 비누	236.2	232.8	3.5
세제 및 세제, 계면 활성제 (비누 제외)	5,542.8	5,434.9	107.9
단백질 물질; 변형 된 전분; 접착제; 효소	4,974.0	4,831.9	142.1
덱스트린 및 기타 녹말, 접착제	194.4	194.2	0.2
기성품 접착제	1,426.4	1,404.6	21.8
폭발성 물질; 불꽃 제품; 성냥; 자연 발화성	822.5	822.5	



합금; 가연성 물질			
사진 및 영화	1,327.0	1,327.0	
기타 화학 제품	9,871.2	9,808.1	63.1
살충제, 쥐약, 살균제, 제초제	284.4	283.2	1.2
유압 브레이크 액체 및 기타 유체, 유압 기어	173.9	173.9	
부동액	1,701.7	1,700.9	0.8
플라스틱 및 플라스틱 제품	158,762.9	155,853.4	2,909.5
1차 형태에 있는 에틸렌중합체	16,018.1	15,364.5	653.6
1차 형태의 스티렌 중합체	2,443.9	2,443.9	
염화 비닐 또는 기타 할로겐화 올레핀의 중합체 (1차 제품)	479.8	479.8	
아크릴 중합체	314.3	314.1	0.2
기타 에폭시 수지	19,904.4	19,898.2	6.3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1차 형태로)	18,357.7	18,357.7	
염화 비닐 폴리머로 만든 바닥재	5,140.7	5,138.1	2.6
플라스틱으로 만든 판, 쉬트, 필름, 포일 (자체 접착성)	7,244.3	7,191.3	53.0
기판이 없는 판, 쉬트, 필름, 포일	49,442.4	49,222.1	220.3
기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후판, 시트, 필름, 포일	12,739.5	12,551.5	188.0
플라스틱 위생 기술 제품 (욕조, 샤워 실, 싱크대, 화장실, 시트 및 커버 등)	6,887.5	6,862.1	25.4
플라스틱 제품 운송 또는 포장 제품	4,125.8	4,083.9	41.9
플라스틱 제품	12,692.6	12,530.4	162.1
고무 · 고무성 제품	86,529.7	86,209.1	320.6
천연 고무	8,208.4	8,208.4	
합성고무 및 팩티스	170.1	170.1	
타이어, 공압, 고무, 신제품	57,358.5	57,341.2	17.3
버스 또는 자동차 운송수단용 타이어	20,739.9	20,739.9	
자동차 또는 운송수단을 포장하기위한 새로운 타이어 제품	20,409.6	20,409.6	
자전거용 타이어 및 고무 타이어 및 튜브	228.0	212.8	15.2
공압, 고무, 신제품 타이어(차량용)	47.7	47.7	



고무카메라	401.0	393.0	8.0
날가죽(털을 제외한), 가죽	1.1	1.0	0.1
가죽 제품; 여행용품, 가방 및 유사한 물품(동물 가죽으로 생산된 제품)	10,980.0	10,674.8	305.2
자연 및 인공 모피; 생산품	261.2	254.2	7.0
모피 의류 및 액세서리	192.9	186.0	7.0
목재 및 목재제품 및 숯	17,684.4	17,374.3	310.0
합판 및 기타 목재 제품용의 클래딩용쉬트(shewn), 층으로 분 리 또는 껍질을 벗긴 것, 두께가6 mm 이하의 것	51.3	51.3	0.0
성형된형태의목재	305.4	304.0	1.4
마분지	1,480.9	1,318.4	162.6
목공용 섬유판	11,366.7	11,340.1	26.6
합판	2,332.9	2,332.9	
코르크 및 그 제품	7.9	7.8	0.0
밀짚 및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 바구니와 고리 버들 세공	282.2	282.1	0.1
목재펄프 또는 기타 섬유상셀룰로오스재료; 재활용 종이 또는 판지(폐지 및 폐기물)	56.9	56.9	
종이 및 판지; 펄프, 종이 또는 판지 제품	31,464.8	30,932.7	532.2
코팅지 및 판지	3,095.8	3,085.2	10.7
코팅되지않은다른종이및판지	46.0	44.0	2.0
카울린으로 코팅한 종이 및 판지	6,601.2	6,589.7	11.6
적층 종이 및 판지	1,956.1	1,950.8	5.3
티슈 페이퍼	14.9	14.9	
벽지	5,153.4	5,138.6	14.8
화장지 및 이와 유사한 종이	4,030.3	3,654.7	375.6
인쇄 된 서적, 신문, 복제물 및 인쇄 산업의 가타 제품	1,289.3	1,277.8	11.6
실크	14.4	14.4	
실크 또는 실크로 만들어진 직물	14.4	14.4	
양털, 얇거나 거친동물의 머리카락; 말머리실과 직물	35.5	16.3	19.2



양모직물	16.3	16.3	
면	680.5	652.4	28.1
중량85 % 이상의면섬유를함유한무게가200 g / m2 이하인면직물	193.8	171.2	22.6
목화 섬유 함유량이 중량85% 이상인 면사포. 무게는 200g/m2 이상 이어야한다.	49.5	46.9	2.6
코튼섬유의 함유량이 중량 85%미만인 화학섬유가 혼합된 면직물(무게는 200g/m2 이하)	81.9	79.6	2.3
면섬유의 함유량이 중량 85%미만인 화학섬유와 혼합된 면섬유로서 표면밀도가 200g/m2 이상인 것	15.6	15.1	0.5
기타 면화 원단	37.1	37.1	
기타 식물 섬유종이원사 및 종이원사직물	25.5	25.4	0.1
리넨 직물	8.0	8.0	
화학 실	7,628.8	6,828.3	800.6
화학 섬유	6,397.1	5,936.3	460.8
펠트 및 부직 재료, 밧줄, 로프 및 케이블 및 그 제품	6,524.1	6,447.8	76.4
카펫 및 기타 섬유 바닥 깔개	2,517.0	2,438.7	78.3
짚카펫	586.7	546.5	40.2
면직 또는 견직 카펫	825.7	825.7	0.0
특수 원단, 레이스, 마감재, 자수 등 함침, 코팅 또는 이중화 된 방직용 섬유 재료; 기술용 섬유 제품	1,809.3	1,640.3	169.0
편물 또는 뜨개질 한 직물	2,581.9	2,527.7	54.1
편물 또는 뜨개질 한 직물	4,407.6	4,107.3	300.3
의류 및 의류용의 제품 (편물 또는 뜨개질 한 것에 한함)	16,722.8	16,214.8	508.0
뜨개질한 남성 코트, 레인 코트, 남성 자켓	12.8	10.9	1.9
여성 코트 및 재킷	29.6	19.9	9.8
남성용 니트, 재킷, 바지	472.1	468.0	4.1
여성용 바지, 하의	2,449.0	2,418.9	30.2



니트 셔츠	25.1	24.1	1.0
여성 니트 블라우스	72.9	69.5	3.4
남성용 언더웨어	81.4	80.6	0.7
여성 뜨개속옷	175.4	169.0	6.3
스웨터, 니트 또는 뜨개질한 셔츠	4,334.9	4,305.1	29.8
의류 및 의류용 액세서리 (니트 또는 뜨개질 제외)	29,051.9	28,927.7	124.2
남성용 코트, 레인 코트, 재킷 및 이와 유사한 제품	2,576.1	2,573.8	2.3
여성용 외투, 비옷, 자켓	9,097.7	9,095.0	2.7
남성용 바지, 멜빵바지, 반바지	1,627.8	1,609.1	18.7
수트, 바지, 반바지	8,305.7	8,288.1	17.6
아동 의류 및 액세서리	1,115.7	1,115.3	0.4
브래지어, 벨트, 코르셋	490.4	467.4	23.0
손수건	3.0	2.7	0.3
솔, 스카프와 이와 유사한 제품	253.6	253.6	0.0
기타 완성된 섬유 제품; 한벌; 과거에 사용된 의류 및 직물; 넘마	26,905.7	26,508.2	397.6
담요 및 여행용 러그	295.2	295.0	0.3
침구 린넨, 테이블, 화장실 및 주방 린넨	2,092.0	1,981.9	110.1
신발, 각반; 이와 유사한 제품	72,557.2	71,989.6	567.6
발바닥에 방수포가 달려 있지 않은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된 방수 신발	260.0	258.7	1.3
신발류	61,115.9	60,939.6	176.3
고무 또는 플라스틱 제의 밑창이있는 기타 신발	27,761.4	27,759.1	2.3
천연 가죽 신발	23,563.6	23,394.1	169.5
섬유 소재 신발	9,179.6	9,177.3	2.3
기타 신발	351.3	350.4	1.0
신발 부품	11,441.3	11,050.0	391.3
모자와 그 부속품	1,883.0	1,838.1	44.8
우산, 양산, 지팡이, 승마용 채찍 및 부품	1,491.1	1,486.2	4.9
우산	1,476.0	1,471.2	4.9
가공 깃털 및 조화, 머리카락	4,760.3	4,755.4	4.9
석재, 석고, 시멘트, 석면, 운모 또는 유사한 물질로 만들어진 제품	31,072.7	30,983.3	89.4



세라믹 제품	14,526.2	14,339.4	186.7
방화 벽돌	25.8	25.8	
건물 벽돌	87.4	87.4	
세라믹 타일, 건축 장식 및 기타건축자재	5.5	5.5	
포장 타일, 세라믹 타일 마무리 용 세라믹 제품	6,514.9	6,451.8	63.2
도자기로 만든 싱크대, 세면대, 욕조, 비데, 변기 및 유사 제품	963.4	908.9	54.4
도자기 식기, 주방 용품 및 기타 가정용 화장실 용품	4,505.2	4,457.7	47.5
유리 및 유리 제품	15,676.2	15,390.7	285.5
열 광택 처리 된 유리	1,223.8	1,189.4	34.4
화물의 저장, 운송 또는 포장을 위한 병, 캔, 앰플 및 기타 유리 용기; 통조림 용 캔	1,329.8	1,267.2	62.6
진주, 귀석 또는 반귀석, 귀금속 및 그와 유사한 제품, 의상 장식품; 주화	494.2	490.2	4.1
흑색 금속	34,470.7	32,858.8	1,611.9
폭이 600 mm 이상인 철 또는 비 합금강의 평판 압연 제품, 열간 압연 제품	3,033.8	2,012.6	1,021.2
냉간 압연 한 폭이 600 mm 이상인 철 또는 비 합금강의 평판 압연 제품	83.5	0.0	83.5
폭이 600 mm 이상인 철 또는 비 합금강의 평판 압연 제품	20,439.6	20,439.6	
철 또는 비 합금강의 평판 압연 제품 (너비가 600 mm 미만인 것에 한함)	114.8	114.8	
추가 가공 하지 않은 철 또는 비합금	54.5	54.5	
철 또는 비합금에 속한 그 밖에 막대	3.8	0.9	2.9
철 및 비합금 특수 프로파일	3,579.7	3,272.7	307.0
폭 600 mm 이상의 내식성 강철의 평판 압연 제품	335.4	335.4	
기타 부식 방지 강철봉; 내식성 강재 일정하고 특수한 각의 프로파일	146.3	146.3	0.1
기타 합금강으로 만든 평판압연제품, 너비가 600mm이상인 것	5,547.4	5,405.4	142.0
너비가 600 밀리미터 미만인 다른 유형의 합금강으로 만든 플랫압연제품	171.3	171.3	



기타 합금 강재의 막대	5.9	5.9	
철 금속 제품	100,238.1	99,627.5	610.6
비철금속으로 제조 한 판금 구조물, 철 또는 강재의 특수 용접 프로파일	2,186.3	2,183.5	2.9